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1, 일반 소개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 , 일반 소개입니다.

당신이 개신교인이고 이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했다면 당신은 이미 축하를 받으신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외경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시작하려면 상당한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선, 외경을 구성하는 책들인 외경은 말하자면 성서 사이, 즉 기원전 400년경에서 서기 1세기 사이에 쓰여진 유대 문학의 작은 표본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경에서 찾을 수 있는 텍스트와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Pseudepigrapha로 알려진 컬렉션에 포함된 수십 권의 책과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책, 특히 비-사해 두루마리 중 성서 책.

다른 문헌들 중에서 요세푸스(Josephus)와 필로(Philo)의 저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서 사이의 이 시기로부터 나오는 대규모 유대 문학의 큰 덩어리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 모음집으로 식별될 수 있는 이유는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독서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이 본문들을 선별해 온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행에 비추어 외경이라는 용어는 개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구약성서의 일부이지만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책들을 가리킵니다. 외경(Apocrypha)이라는 용어는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경은 분명히 이 텍스트에 대한 개신교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책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중역경으로 불리거나 단순히 구약의 일부로 언급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경인 Deuterocanonical이라는 단어는 2급 정경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가 구약의 일부로 합의한 책들 이후에 등장한 정경일 뿐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후기 저작물 그룹입니다. 신명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의 많은 부분에 대한 이전 진술보다 율법의 진술이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신명기도 더 이상 다른 정경의 책들보다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개신교인들이 이 책들을 읽기 위해서나 이 책들에 담긴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종종 상당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내가 외경에 관해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은 이 책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시험되었고, 부족함이 발견되었으며, 본질적인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는 외경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정경에서 제외되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해롭고 독자의 진실 감각을 왜곡하고 왜곡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가톨릭과 다른 기독교 교단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편견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 책들은 그들이 읽는 책이지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외경에 대한 내 경험은 다소 다릅니다. 저는 성공회에서 자랐고 전 세계 성공회에서는 이 책들을 성경이 아닌 동시에 비성경적인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중 일부가 교회에서 읽히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본문은 성경이 아니지만 교회가 전수한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개신교 개혁가들이 이 책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고 놀랐습니다. 마틴 루터와 우리는 이에 대해 나중 강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출판할 때 이 책들을

번역할 정도로 이 책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교구민들이 본문을 읽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번역하여 그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가 독일어 성경을 출판할 때 외경을 구약성서에서 분리하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성경과 동등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가 그것을 번역하여 거기에 놓았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가 자신의 말로 그 책들이 읽기에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종교개혁도 외경에 관해 이런 온건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성공회 신앙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39개의 종교 조항에서 외경은 한편으로는 명백히 성경의 수준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승격됩니다. 삶의 예와 예외범절에 대한 예를 인용하고 읽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개혁가인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와 존 칼빈(John Calvin)도 이 책들을 높이 평가했고, 이 책들의 자국어 성경 번역을 제공했으며, 참되고 유용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인용하되 번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고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이 진실이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은 승진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대부분의 내용은 비정경 문헌이며, 대부분은 외경보다 오류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독교 서적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나의 마지막 카탈로그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것은 외경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경전이라고 부르는 책들의 단순한 계시에서 훨씬 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교회 전체, 즉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뿐 아니라 고전적인 개혁가들까지도 증언하는 것은 개신교 독자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경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Max Lucado, Joyce Myers, TD Jakes 또는 누구든지 최신 책을 읽기 전에 읽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이 입문 강의에서 이 책들이 어디서 왔는지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모두 유대교 문헌입니다.

그 중 일부는 유다 또는 유대에서 왔으며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지에서 나왔습니다. 일부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이나 현재 터키 남부에 해당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인근 어딘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일부는 동부 디아스포라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컬렉션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 세계 전역의 유대인 작가들의 목소리를 대표적으로 샘플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또는 더 큰 지중해나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십시오 .

그리고 외경의 모든 책은 대략 기원전 300년 사이의 시기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관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기원전 25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유대교의 내용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표적인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사이의 이 기간 동안 당시 유대 세계 전체와 같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외경을 모음집으로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의 독서 관행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책들과 기독교 교회에서의 그 위치는 항상 일종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개신교인들이 하는 유대인의 정경, 즉 1세기 사람들이 24권으로 열거했던 더 짧은 정경을 따라야 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소선지서를 별도로 계산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열거합니다. 아니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책을 포함해야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독서 관행이 비록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우리에게 이 모음집을 제공했으며, 심지어 나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읽어야 할 특히 귀중한 유대 문학의 더 큰 풍부함 중에서 이 텍스트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경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는 다양한 장르와 문학 종류에 속하는 책을 발견하며, 특히 잘 알려진 장르 중 하나는 성경 이야기를 확장하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에스드라상으로 알려진 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스라서 역대하의 끝 부분과 느헤미야서의 한 장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의 또 다른 버전, 즉 개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 그리고 우연히도 성경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 이 기간 동안 인기 있는 종류의 문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개신교 정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버전의 책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경에는 다른 버전의 에스더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친숙한 버전은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었으며 그리스어 버전의 에스더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외경의 일부 판에서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서에 추가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거기서 추가된 자료는 방금 뽑아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전체가 그리스어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친숙한 에스더서를 읽고 나면, 그리스 에스더서가 얼마나 종교적인 책인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유대인의 경건의 표시는 추가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에스더 전체에 나타납니다. 외경에서는 더 뚱뚱한 다니엘의 버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삭제장면을 복원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패한 판사들에 의해 위협에 처한 유대인 처녀 수잔나의 이야기가 책의 시작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두 개의 외국 종파, 즉 벨 종파와 용

종파에 대한 폭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음집은 용광로 속의 세 청년 다니엘 셋의 이야기와 함께 아름다운 예배 시로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아사랴의 입술에 회개의 기도가 얹혀졌고, 그 다음 세 사람 모두의 입술에 긴 감사의 시가 얹혀졌습니다. 또한 다른 확장판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텍스트라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므낫세의 기도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인 므낫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참회 시편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황폐화시킨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다에게 내린 신명기의 저주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편 150편에 시편 151편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삶의 다른 에피소드는 일종의 예배적 순간, 즉 그가 형제들을 선택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외경에는 매우 중요한 두 권의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1서와 2서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원전 175년부터 141년까지 유대에서 일어난 소란스럽고 서사적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일 것입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라를 준수하고, 뚜렷하고, 다르며, 우리 군주의 뒤떨어진 사람들의 눈에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들처럼 되어서 동화되어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될까요? 이 시기는 또한 약 400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은 후, 이스라엘이 마카베오 반란을 주도한 역할로 더욱 유명한 하스몬 왕조 치하에서 약 8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독립 국가가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책에 나오는 사건들은 실제로 유대인의 정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도전과 선택은 신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기간에 걸쳐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세기 유대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열심당의 뿌리는 마카베오 반란과 같은 폭력적인 저항 운동에서 나타난 토라에 대한 열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컬렉션에는 지혜에 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더 확장하자면 교육용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외경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책 중 하나는 때때로 Sirach 또는 Ecclesiasticus라고도 알려진 Ben Sira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잠언과 매우 유사하지만 분명히 훨씬 더 발전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매우 긴 자료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의 대부분은 별개의 격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Ben Sira는 대부분 5~10절의 지침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이 잠언에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 시라의 지혜는 기원전 200년경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후의 발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벤 시라의 지혜가 기원전 200년의 예루살렘 기반 지혜를 보여주는 반면, 솔로몬의 지혜는 아마도 기원전 50년경에서 서기 30년경까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반 지혜를 보여줍니다. 특정 책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집트 유대인,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쓴 바룩이라는 이름의 책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Baruch는 흥미로운 장르의 조합입니다.

그 중 일부는 참회 예식이고, 일부는 지혜의 시이며, 일부는 시온의 곤경과 예루살렘의 곤경이 하나님의 좋은 미래에 반전될 방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라는 아주 짧은 책을 갖고 있는데, 오래된 외경 모음집에서는 바룩서의 마지막 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맞서는 장광설입니다.

그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숭배에 참여하고 어찌면

그들과 합류하도록 이끌리는 것을 보는 영향으로부터 면역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더 관대하거나 심지어 포용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철학적 논문으로 가장 잘 기술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기술적인 용어조차도 특정 삶의 방식을 장려하는 특정 철학을 장려하는 담론을 의미하는 전조적 담론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스 철학적 담론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홍보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영감을 주는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작품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토빗서, 유딧서, 마카베오서 2서일 것입니다.

토빗서는 아시리아 정복의 일환으로 니네베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직면했던 몇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생활 방식이 적시에 신성한 도움과 구원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그것은 그 시대의 윤리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창이기도 합니다.

주디스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유딧트는 느부갓네살의 장군 중 한 명인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매력을 사용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고대 독자들에게 이것이 허구라고 거의 비명을 지르는 역사적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그러나 허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단으로 제시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 입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주의자인데, 말하자면 여자의 손까지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의 마지막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손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셋째, 마카베오는 우리를 디아스포라, 특히 이집트 영토의 그리스 왕이자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한 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곤경에 처한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 당국과의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충실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신성한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 인쇄되는 경향이 있는 외경 모음집에는 두 번째 에스드라(Second Esdras)로 알려진 하나의 묵시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Second Esdras는 실제로 세 권의 다른 책을 합친 텍스트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쓰여진 제4차 에스드라라고도 알려진 유대 묵시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허용하셨을 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관심이 훨씬 적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빴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훨씬 더 나빴다는 일종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로마인들이 계속 번영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우리엘이라는 천사 사이의 대화에서 이러한 질문은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인 토라 준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길로 다시 떠오르는 결과로 해결되었습니다. 국가적 불행. 이제 외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고,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컬렉션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보다 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경을 30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고, 40시간이 걸린다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없다면 외경은 우리에게 신약 중간 유대교에 대한 귀중한 창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은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교회사 초기부터 종교개혁까지 전문가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현대 교회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신이 1500년까지의 교회 역사만 다루면 당신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안다면 21세기 기독교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무엇이 새로운지, 그리고 결국 무엇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고, 1500년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21세기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긴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전 유대교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신약성경을 연구할 때 유대교가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본질적인 격차를 메워줍니다. 그들은 1세기의 도전에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씨름하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중간기 유대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는 특히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마카베오 1서와 2서를 언급했습니다. 율법과 언약 신학의 발전에 대한 창구입니다.

유지되고, 특정 경험에 직면하여 뒷받침되어 언약 신학이 계속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 예를 들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와 축복이 아니라 고문으로 인한 단명과 죽음. 그것이 유대인의 경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신명기와 그 약속을 확언할 수 있습니까

? 외경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도전에 답할 수 있었는지, 신명기와 역사를 삶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틀로 보는 관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문헌에서 유대인-이방인 관계에 대한 매우 유용한 창을 얻습니다. 이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유대인-이방인 관계보다 1세기에 훨씬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왜 알아보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그러한 편견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압력에 맞서 싸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조상의 방식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다양한 자극, 즉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정체성과 경계를 유지하는 것과 동화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내에 존재했던 긴장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초대 교회의 탄생까지 몇 세기 동안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매우 유용한 창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벤 시라(Ben Sira)에서 우정과 후원자-고객 관계에 대한 많은 창을 발견하고 구약성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에서 실제적인 발전과 전환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한 그 시대의 경건함과 종교적 관습을 증언합니다. 토라 준수를 보는 것과 성전 숭배와 희생을 대체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신약의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의미 있고 매우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유대인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토라 준수나 성전 희생, 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희화화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신약성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디옥에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외경이 우리에게 중간기 유대교의 세계를 열어주는 방식과는 별개로, 나는 이 책이 기독교인, 모든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경은 예수의 가르침과 신약성경 저자들에게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서. 그런데 신약성서 외경의 한 구절을 명시적으로 낭독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찾은 내용과 외경에서 찾은 내용 사이에는 많은 공명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나올 수 없는 자료라도요. 그것은 구약성경이 끝난 이후 분명히 새로운 발전이다.

비록 신약성서의 저자가 외경의 어떤 책도 직접 읽지 않았을지라도 외경은 우리에게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끌어낸 문화 지식, 종교 지식, 윤리적 지식의 더 넓은 풀장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충분한 반향이 있습니다. 예. 또한 외경은 가장 형성되는 세기에 기독교 교회가 발전과 존재의 매우 중요한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학생들에게 외경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오늘날 외경의 정경적 지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상관없이, 외경의 본문이 초기 기독교의 발전이나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에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신학의 이러한 본질적인 발전 중 일부를 이해하려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가 누구였는지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텍스트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변증 작업을 할 때 외경의 본문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비기독교인 유대인을 향한 변증이라기보다는 비기독교인 이방인을 향한 변증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와 솔로몬의 지혜에서 볼 수 있는 반우상 숭배 논쟁은 저스틴

순교자(Justin Martyr)와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와 같은 2세기 기독교인들의 변호 연설, 즉 변명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점에서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2세기와 3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순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해에 직면한 그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유대인 순교 이야기를 찾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의 순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는 구약성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외경, 특히 마카베오서 2서와 4서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두 권의 책은 예를 들어 키프리안이나 오리게네스의 순교 권고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등장하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 전례를 발전시킨 외경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동방 정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지혜(Wisdom of Solomon)는 그곳에서 매우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또한 외경에서 발견되는 기도와 시편은 아주 초기부터 초기 기독교 전례 관행의 주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외경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윤리적이고 헌신적인 문헌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들에서 우리는 단지 이생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의 변호를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외경(Apocrypha) 책은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 질문과 씨름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충동과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길들이고 극복하는 것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외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관행과 미덕을 실천하는 데 더욱 온 마음을 다해 더욱 진실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고백, 회개, 찬양, 청원에 대한 훌륭한 예뿐만 아니라 용서, 관대함, 기타 관계적 은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기독교인이든 외경을 탐구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지 두려워하지 않고 경전의 정경 밖에서 읽는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외경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윤리적, 헌신적 측면에서 매우 많은 면에서 확실히 풍요로워질 것이며, 또한 신약성서의 저자들을 시작으로 신앙의 조상들이 영감을 얻었고, 재료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일반 소개입니다.